

분류	산업선교
제목	공동체와 산업선교(254)-OMC시대를 위한 응답 (21)- 중직자와 제자
성경	사도행전 2:41-42
일시	2009년 7월 4일
장소	서울 산업 선교센터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녹취 자료 ♣

서론

▶행2:41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랬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더 발전되어서 유행되는 게 점술이다. 옛날에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과학적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식당으로 점술이 퍼져 들어간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점술 전문인을 데리고 있다고 한다. 거의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는 인정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뭔가 하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부분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나 **하나님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불신자보다 더 생각이 작게 된다.

- (1) 창조(생명)
 -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 (2) 예정(구원)
 -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특히 구원 부분이다.
- (3) 섭리(준비)
 - ▶또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섭리라는 말은 거기에 따르는 역사적인 모든 준비를 말씀한다.
- (4) 경륜(의도)
 - ▶그래서 이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경륜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다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런 저런 일이나 역사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전부 이걸 가지고 포함하고 계신다.
- (5) 작정(시간표)
 -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데 작정하신 바가 있다. 이걸 시간표를 말하는 것이다.
- (6) 천국
 -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작업까지 완전히 하시는 것이다.
- (7) 영원
 -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이다.
 -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가장 가깝게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셔도 백년 이내에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다 움직이신다.

♣ 성경말씀 (사도행전 2:41-42)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 요약 자료 ♣

◆서론 -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1.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요일5:14)
2. 모든 사람 속에 구원 받을 자(행13:48)
3. 구원받은 자 속에 제자(롬16:25-27)

◆본론 - 중직자가 해야 할 제자훈련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1. 지역을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 (1) 행16:15
- (2) 행17:6
- (3) 행18:3-4

2. 세계(나라) 책임질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 (1) 선교를 모르는 이스라엘
 - (2) 선교를 모르는 교회
 - (3) 선교를 모르는 중직자
- ※이스라엘의 고통이 언제 시작되는지와 언제 해결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3. 전도운동을 책임질 지도자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 (1) 단12:3
- (2) 마24:14
- (3) 행1:8

◆결론 - 행2:41-42

(The end)

▶자, 이런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는 것이다. 제자이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가 제일 눈 떠야 되는 부분이 제자이다.**

특히 참고하셔야 될 것은 제자는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인본주의 하지 않는다. 교단에서 만약에 신학이 바로 되어있다면 교인은 뺏어가고 주고 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건 근본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한때 막으려고 했는데 그게 막아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단체라고 하면 막으려고 안 해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절대주권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교인을 뺏어간다고 어쩐다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틀린 소리이다. 그렇게 되는 법이 없다.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제자에 다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답이 나왔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다. 바울은 이걸 깨닫기를 숨겨뒀다고 했다. 숨겨뒀다는 말이 굉장히 쉬운 것이다. 숨겨뒀다는 말은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다. 숨겨뒀다는 말은 다른 관계없는 사람은 못 찾겠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 받는다고 되어있다. 모든 사람 속에 구원받을 자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13:48에 구원주시기로 작정했다고 했다. 그 작정이라는 말은 그때의 시간표를 말한다. 어떤 사람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 내가 저 교회 다닐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깨달았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듣다가 못 깨달았는데 전도사님 설교 듣다가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그 구원받은 자 속에 제자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계속 속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 속에 제자.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알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 제 2의 시작을 한다. 어떤 시작을 하느냐이다.

▶본론 - 캠프

1.지역

▶지금부터 모든 중직자, 모든 신학생, 모든 램네티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역 책임질 제자를 찾는 것이다. 저는 약간의 교만스러운 자랑을 하고 싶다면 이 운동은 다락방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십 몇 년 동안 전도만 하기 위해서 펼쳐서 기도한 단체는 없다. 이제는 이 말은 캠프를 말하는데 지역캠프 할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있다. 행16:15, 행17:6, 행18:3을 보면 된다.

2.나라(선교)

▶앞으로는 이제는 시간 가면서 중직자와 램네티와 모든 신학생을 가지고 앞으로는 각 세계 나라의 캠프를 책임질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원래는 선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돌면서 캠프를 했지만 앞으로는 책임자들을 세워서 제대로 전도운동이 계속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에 대한 이해를 한 것을 말한다. 도대체 제자훈련이 뭐냐? 지역에서 불을 밝힐 캠프를 할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것을 심는 것이다. 도대체 제자훈련이 뭐냐? 한 나라를 책임질 사람을, 제대로 전도에 눈 뜬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 찾는 게 제자운동이다.

3.지도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도운동을 책임질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 총신에서도 앞으로 시도를 하고 램네티도 시도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다락방의 제 2의 운동이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가 캠프가 뭐다 전도가 뭐다 이렇게 다녔지만 체계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제자훈련이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전도운동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12:3에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 역사를 얘기하면서 모든 민족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각 교회들이나 시대들을 보면 전도운동을 지속 못 한다. 겨우 한다는 게 그냥 조금 교단 운영하고 개교회로 끝나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게 되어지려면 이런 제자운동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총신생도 이렇게 안 키우면 앞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꿈꿈이 한탄하고 생각해봐라.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나갈지도 모르고 현장도 모르고 있던 말이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야 이제 나간다. 그러면 또 언어를 해야지. 언어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 또 문화 부딪치 경제문제 오지 제자 없지 될 수 있는 조건이 없다.

그래서 신학생을 처음부터 키워야 된다. 처음부터 학교면 학교, 공단이면 공단, 어떤 도시면 도시 이렇게 신학생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어내면, 여러분 신학생들이 한해에 얼마나 오는지 아는가? 한국에 신학교가 몇 개라고 생각되는가? 적어도 2백 개 넘는다. 2백 개는 훨씬 넘지만 최소한 잡아도 2백 개다. 그러면 최소한 잡아서 한 군데에 백 명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학교가 벌써 몇 백 명인데 최소한 잡아서 백 명 잡는다. 그러면 한 해에 2만 명이다. 한 해의 2만 명이 전혀 제자도 모르고 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 움직여야 되니까 마치 구멍가게 하듯 막 하는 것이다.

이걸 벌써 천주교에서는 제도적으로 쥐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는 처음부터 개신교를 비난한 게 이 부분이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난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개신교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분열교라고 했다. 자기 마음대로 분열해 나가는 분열교라고. 그래서 전체가 조직이 된다는 말이 카톨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를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한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뭐가 하면 Holy Catholic Church를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걸 전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게 그냥이 아니고 중직자 시대다 뭐다 이게 지금 시대적 도전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한번 병원에 가보니까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한 군데 이상이 있다. 혈관이나 혈액이나 심장은 다 정상이다. 딱 한 군데 두 배로 나온다. 그게 뭐냐? 들으면 웃을 얘기다.

스트레스. 그게 두 배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생각 없이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다. 더 웃기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이걸 다 하고 있다니까. 어찌 된 일인지 교회만 못하고 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는데 하기는 다른 데서 한다니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걸 제일 잘 하는 데가 통일교 아닌가? 아주 신천지에서 요즘 우습게 나온다.

신천지에서 요즘 교회 파괴시키러 나온다. 그리고 요즘 또 작전을 바꿨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신학교가 문제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학교에 입학시켜서 신학교를 뒤집는다. 약간은 참고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배경을 가지고 말하는가를 이해는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을 편드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신학교(神學校)가 아니라는 것이다. 합동, 고신 저거 다 신학교가 아니다 인학교(人學校)다. 이게 신천지의 주장이다. 고신 이런 데는 신학교가 아니고 인학교다. 도저히 일리 없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또 나보고 신천지 편든다고 또 시비 걸 것이다. 이단 고무찬양이라고 또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통보수 신학교를 보고 신학교라고 안 그러고 인학교라고 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신천지가 두려울 게 아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 총신에 가서 앞으로는 이런 제자를 키우겠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 이거 안 되면 졸업도 안 시켜야 된다. 뭐 때문에 졸업해 나가는가? 도저히 현장에 대한 역사도 한 번도 못 봤고 전 세계 지역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았는데 그게 목사 되어서 나가버리면 곤란하다. 한 해에 2만 명만 생겨나는가? 아마 이것보다 열 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정도가 아니다. 이걸 정식으로 최소한 잡은 것이다.

제가 어느 핵심지역에 갔더니 어떤 여 집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하나 주더라. 초청장하고 같이. 보니까 뭐냐?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물어봤다. 이 사람 신학 했느냐? 아니다. 그런데 다락방에 어찌 와 있느냐? 모르겠다? 하더라. 이런 식이다. 아줌마들 며칠 모여서 기도회하고 받는 데 천지이다. 그리고 웃기는 것은 몇 달 모여서 특수훈련 받고 안수 받는 데도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주고 난 뒤에 월부로 돈 내는 데도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십만 명도 더 쏟아진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떡할 것인가? 전혀 캠프에 눈을 뜨지 못하는데, 우리라도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할 것이다.

▶그래 너희는 맞고 우리는 다 틀렸다. 또 그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면 그건 나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아니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국가 돈을 다 말아먹고 바로 된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데 그 사람에게 너만 잘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는가? 강서 지역에 비오는 날 한번 보라. 썩은 냄새가 난다. 비오는 것을 이용해서 막 폐수 버려서... 각 각 공장이나 목욕탕에서 비 오는 날 불뽕으로 다 태우고 한다. 그러면 그 공기가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다고 한다. 자기도 마시는데 뭐...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세계교회의 상황이 이 부분이 없어져버렸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된다.

▶당연히 아무리 막아도 삼천 제자가 일어났다.

아무리 막아도 지속되게 되어있다.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막을 것인가? 그래서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 게으름 필요도 없고 과열할 필요도 없이 언약만 잡으면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교수님들 이 시대에 꼭 중요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해줬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모든 시대적인 주의 종들 위에 산업인들 위에 중직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넛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data.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넛총국)	